



바다 위 숨겨진 위험, 예산이 없으면 방치해야 할까요?

해양경찰 VTS와 관계기관이 협업으로 일궈낸
바다 위의 혁신, '가상 항로표지' 도입기



"안녕! 난 해양경찰청 아치야! 오늘은 바다에서 일어난 멋진
적극행정 이야기를 들려줄게!"

⚠️ 사건의 발단

2025년 8월, 욕지도 인근 해상



19명이 탄 낚시어선 '행운호'가 내장덕암에 좌초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분석 결과, 이곳은 야간이나 안개가 낄 때 충돌·좌초 위험이 매우 높은 '항행 취약 해역'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고를 막기 위해, 이곳에 **항로표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문제 봉착

"예산 문제로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통합 선박의 안전을 위해 관계기관에 항로표지(AIS AtoN, 레이콘) 설치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거절이었습니다. 물리적인 설치 비용과 지속적인 유지, 보수 예산 문제라는 큰 장벽에 부딪힌 겁니다.



"국민의 안전이 달린 문제인데...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



적극행정의 시작

포기 대신 발로 뛰는 선택, 직접 찾아 나선 대안



해양경찰 VTS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경남지역 해양안전 협의체에 안건을 내고, 마산 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과를 직접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대하고 비싼 구조물 대신, 현실적이고 혁신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관행을 뚫고 **유관기관과 머리를 맞댄 결과!** 엄청난 아이디어가 나왔어!"



혁신 기술 소개

바다 위에 띄운 디지털 신호등, '가상 항로표지'



실제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고도, 선박의 AIS와 항해장비 화면에 실시간으로 위험 암초 위치를 띄워주는 "가상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Virtual AIS AtoN)" 기술을 전격 추진한 것입니다!



"관행을 뚫고 **유관기관과 머리를 맞댄 결과!** 엄청난 아이디어가 나왔어!"



신속한 추진

막혔던 행정의 뚫리자, 일사천리로 바뀐 바다



출처 : istockphoto

적극적인 협의 덕분에 2026년 2월 시범운영을 거쳐, 바로 다음 달인 3월부터 정상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예산 때문에 하염없이 밀릴 뻔했던 안전조치가 단 몇 달 만에 실현된 순간이었습니다.



"서류에 묶여있던 안전이 단 두 달 만에 현실로 이루어졌어!"

✓ 기대 효과

비용은 쏙 줄이고, 안전은 꼭 잡았습니다!

사고 예방

선박 항해장비에 위험 정보가 실시간 표출되어 충돌·좌초 원천 차단!

선제적 관제

VTS 시스템에 '충돌 예방 기능'을 설정해 해상교통관제 대폭 강화!

확산 가능성

신속한 설치와 예산 절감 효과로, 전국의 또 다른 위험해역에 적용할 멋진 롤모델 완성!



"안전하고 평화로운 바다! **해양경찰의 놀라운 변화가**
만들어냈어!"

♡ 마무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안 된다는 관행을 깨는 것,
그것이 바로 '적극행정'입니다.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해양경찰의 적극행정,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제작 : 해양경찰청 적극행정 기자단 [변찬웅]



"우리 바다는 우리가 지킨다! **좋아요와 댓글** 많이 남겨줘!"